

우리나라 書誌事業의 現況과 課題

尹 炳 泰
(忠南大 圖書館學科)

현대와 같은 情報의 洪水 시대에 있어 研究를 위한 시간·인력·금전상의 허비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소급적인 文獻情報 및 최신 정보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書誌情報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書誌의 편찬·축적·배포에 대한 組織的이고도 計劃的인 노력이 요구된다.

I. 緒 言

오늘날의 대학교육이나 연구활동에 있어서 叢誌의 중요함에 비하여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도서나 논문집·학회지·학보·연구보고서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은, 해마다 책자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비책자의 형태로, 홍수와 같이 발행 배포되고 있다. 말하자면 情報의 洪水時代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교수나 연구원들이 연구 활동을 행할 때에 이미 남이 연구한 것을 거듭 연구한다면, 그와 같은 연구는 시간과 인력 나아가서는 금전상의 허비나 손실을 초래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이미 어떤 것이 연구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遡及的인 文獻情報에 대한 調査가 필요할 것이고, 동시에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새로운 연구 결과를 검토·음미하고, 이

를 교육에 활용할 때야말로 진정 새로운 살아 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야말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다 하겠다.

일찌기 중국의 昌彼得 교수는 “書誌야말로 학문의 지름길(捷徑)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다.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 서지를 이용하든지간에, 서지의 도움이 없으면 컴퓨터와 같은 사람의 두뇌일지라도 홍수와 같은 문헌정보의 흐름을 헤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서지는 크게 ① 叢目, ② 藏書目錄, ③ 索引, ④ 抄錄, ⑤ 解題, ⑥ 引證, ⑦ 目次一覽의 일곱 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들은 단행본이나 총서·전집의 형태로도 발행되지만, 대개의 경우 연속간행물의 형태로 간행된다. 특히 最新性이나 速報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지들을 편찬하여 간행하는 곳과 이들을 전산처리·봉사하는 기관은 다양하다 하겠

다. 이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① 국립도서관들, ② 대학의 도서관·연구소 등, ③ 행정부의 각 부처·청 등, ④ 국책기관들, 그리고 ⑤ 그 밖의 민간 주도의 여러 곳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서지활동을 주제별로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래에서는 앞에서 든 다섯 가지 유형의 기관별로 나누어서 그들의 중요한 서지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國立圖書館들의 書誌活動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으므로, 국립도서관도 삼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國立中央圖書館은 사실상의 외국에 대한 國家代表圖書館인 셈이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도서관은 國會圖書館, 사법부를 대표하는 도서관은 法院行政處圖書館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국립도서관 중에서 지방에까지 행정조직망이 제대로 된 곳은 사법부뿐이다. 세 국립도서관에서는 각각 아래와 같은 서지활동을 하고 있다.

(1) 國立中央圖書館

월간의 國家書誌인 「문헌정고」와 그 연간 누적판인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이라는 국가서지를 발행하고 있다. 또 참가하는 도서관의 협력을 받아 「외국도서종합목록」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의 도서관에 입수한 歐美·中國·日本의 출판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목록인 「藏書目錄」, 「고서목록」, 「外國古書目錄」도 간행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KOR MARC라는 전산화서지체계도 개발하여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과 「외국 도서종합목록」을 입력하고 있으며, 또 연속간행물에 관한 체계도 개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은 카드 형태의 출력도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學術論著綜合索引」을 1984년 현재 12집까지 발행하였으니, 이는 주제분야별로 단행본·학위논문·연속간행물의 기사 등을 종합한 소급서지로서 학술적인 기여도가 높은 서지라 하겠다. 또 소장

하고 있는 古文帙의 해제인 「고문서해제」와 善本の 해제인 「선본해제」도 간행하였다.

(2) 國會圖書館

국회도서관에서는 격월간으로 우리나라 연속간행물의 논문기사색인인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전산출력으로 출판하고 있으며, 매년 연간으로 그 연간 누적판도 출판하고 있다. 1981~82년도에는 이들의 4년 누적판을 두 가지 발행하였으니, 「社會科學論文記事索引」 2책과 「人文科學論文記事索引」이 그것이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주제분야별 소급서지도 발행하였다. 예를 들어 「醫學·藥學論文總目錄」, 「韓國史研究論著目錄」, 「韓國女性關係文獻目錄」, 「政治·行政·法律論文總目錄」 외에도 많이 있다. 그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의 월간 속보로서 「月間收書速報」도 내고 있으며,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藏書目錄」도 발간하고 있다. 정부간행물과 대학간행물의 목록인 「정부간행물목록」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령의 목록인 「대한민국 법령색인」도 여러 번 누적판을 낸 데다가 격년으로 그 추록을 발행하고 있다. 학위논문의 목록인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특유의 기능 때문에 외국에서의 입법에 대한 정보지로 「최근의 국입법동향」을 간행하는 한편, 그 도서관에 들어온 자료를 알리는 「主要海外資料速報」를 주간으로 내고 있고, 또 각 대별의 국회 회의록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代國會會議錄索引」을 계속 발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든 여러 가지 간행물 중에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대한민국 법령색인」과 「국회회의록색인」들은 모두 전산입력을 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한국 데이터 통신의 정보 봉사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가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개인이 편찬한 여러 가지 서목도 많이 간행하였다. 그 중에는 尹炳泰의 「韓國古書綜合目錄」, 李用熙의 「近世韓國外交文書總目」, 李鉉淙 등의 「韓國史研究論文總目錄」, 李玉의 「在佛韓國關係文獻目錄」, 李春熙의 「李朝書院目錄」, 白麟의 「羅麗文籍誌」, 桂勳模의 「한국인론관계 문헌목록」과 「韓國新聞雜誌年表」 등이 들어 있다.

(3) 法院行政處圖書館

법원행정처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각급 법원들을 위한 조직망이 가장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는 국립도서관이라 하겠다. 이 도서관에서는 소급서지활동으로 「법원도서관소장 논문목록」을 여러번 간행하였으며, 종합목록으로는 「法院圖書館所藏綜合目錄」을, 또한 대법원의 장서단 수록한 「大法院藏書目錄」도 발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여러 법원도서관을 위하여 집중수집과 집중정리를 한 다음 인쇄목록카드를 배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서지활동이라 하겠다.

III. 大學에서의 書誌活動

대학에서의 서지활동은 대체로 도서관·연구소 그리고 학과에서의 편찬 활동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간행물은 대개 그 대학의 출판부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서관의 경우 대개는 장서목록을 간행하고 있으며, 신작자료에 대한 속보나 소식, 신작 잡지의 目次速報를 정기적으로 발간 또는 복사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학 소속의 교수들의 저서나 논문의 색인·목록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편 교내에서 간행된 논문집·학보·신문의 색인집도 편찬·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이들의 전시목록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곳도 많다. 대학원에서는 수여한 박사·석사의 학위논문목록이나 초록집을 매년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배포하고 있는 곳도 많다. 아래에서는 각 대학에서의 서지활동을 대학별로 다루기로 한다. 도서관에서의 간행물은 특기할 것을 제외하고는 생략한다(차례는 순서가 없다).

(1) 서울大學校

圖書館에서 법률관계 소급서지인 「法律文獻索引 1945~1976」을 간행하였으며, 그 추록의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을 낸 다음 中國本の 目錄도 준비중에 있으며, 이들의 해제인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를 계속 편찬하여 간행중에 있다. 東亞文化研究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서를 중심으로 한 해제서인 「韓國經濟關係文獻集成」, 「韓國近

世對外關係文獻備要」, 「韓國地方志綜觀」등을 간행하였으며, 傳記 관계의 서지 작성도 끝났다고 한다. 自然科學綜合研究所에서는 「外國學術雜誌目次」라는 목차속보를 5개 분야에 걸쳐 격월간으로 간행하여 전국의 종합과학연구소에 배포하고 있다. 行政大學院에서는 「韓國行政索引」을 낸 이후에 계속하여 행정학관계의 소급서지 2종을 간행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전국의 국립대학교를 위한 봉사인 한 가지로, 도서관에서 「國立大學校所藏 外國雜誌綜合目錄」도 발행하였고, 또 목록의 전산화도 하고 있다.

(2) 高麗大學校

圖書館에서는 UN寄託圖書館장서 등을 포함한 고서 및 장서의 목록중서로서 「高麗大學校藏書目錄」을 19집까지 간행하였다. 勞動問題研究所에서는 「韓國勞動關係文獻目錄」을 간행한 다음 그 추록도 곧 간행할 예정이다. 民族文化研究所에서는 고서해제인 「韓國圖書解題」를 발행한 데 이어, 광복 후의 학술적 저서·논문의 초록으로 「韓國論著解題」를 분야별로 5책을 발행하였으며, 그 보유편도 2책이나 간행하였고, 계속 보충 편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亞細亞問題研究所에서는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 2책을 출판하였고, 또 中共관계의 소급서지와 영어로 된 한국고서의 해제 각각 1종씩을 간행하였다. 행정학과와 사회학에서 그 분야의 간략한 소급서지 각 1종씩을 내어 놓았다.

(3)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에서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몇 번 내다가 중단하였다. 產業經營研究所에서는 「產業經濟文獻目錄」을 2회 간행하였다. 文科大學 圖書館學科에서는 李炳穆의 「韓國의 大學定期刊行物」이라는 연속간행물 총목록을 발행하였으며, 出版部에서는 오인택의 「한국 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이라는 소급서지를 출판하였다.

(4)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에서 「韓國民俗關係資料目錄」등 민속학에 관한 종합목록과 서지를 3종 출판하였다.

(5)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에서 「韓國文集索引」 2책을 발행하였다.

(6) 中央大學校

韓國學研究所에서는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을 2회, 「韓國學論說索引」을 2회 간행하였고, 韓國教育問題研究所에서는 「韓國教育目錄」을 6회 발행하였다. 이 목록은 교육분야의 도서·보고서·연속간행물·학위논문 등을 주제분야별·저자별로 작성한 교육관계 소급서지이다. 圖書館에서는 「獨語獨文學藏書目錄」 2책을 발간하였다.

(7)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에서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을 발행하였으며, 해마다 자세한 해제를 붙인 불교서적의 전시목록을 발행하고 있다. 出版部에서는 「高麗大藏經」의 「總目錄·解題」를, 政治外交學科에서는 「政治外交學圖書目錄」을 간행하였다.

(8) 淑明女子大學校

圖書館에서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연간으로 3회 발간하였으나, 중단하고 말았다.

(9) 其他 大學

公州教育大學에서는 「전국 교육대학 논문목록색인」을, 公州師範大學 圖書館에서는 「學術論文記事索引」을 발행하였다. 한편 釜山女子大學 圖書館에서도 비슷한 「學術論文索引集」을 2집이나 간행하였다.

IV. 政府機關의 書誌活動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자료목록·속보 등을 모두 발간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국책적으로 세운 연구기관에서도 다양하게 서지들을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각 부처나 소속 연구기관에서 편찬하는 서지들은 전문성이 높은 주제서지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알려진 것에 한하여 약간 소개한다.

(1)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에서는 「政府記錄保存文書目錄」을 여러번 간행하였다.

(2) 科學技術處

情報產業局에서 「國內發刊刊行物綜合目錄」을 간행하고 있다.

(3) 國土統一院

資料管理局에서 「共產關係圖書目錄」과 「北韓關係研究資料目錄集」을 각각 여러번 간행하였으며, 「共產主義批判圖書目錄」을 발행하였다.

(4) 法制處

圖書館에서 「古法典資料目錄」과 「구한국법령 목록」을 발행하였다.

(5) 文敎部

學術院에서는 매년 「學術總覽」을 여러 책 발간하고 있다. 이 책은 매책마다 주제·내용이 다르며 높은 수준의 단행본 및 논문의 초록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29집이 간행되었다. 中央教育研究院에서는 「教育論著 總合索引, 國內篇」이라는 소급서지를 발간하였다. 藝術院에서는 藝術總覽이라는 소급적 초록을 발행하고 있는 바 한국 미술사편과 연예·민속편이 나왔다. 예술원에서는 「韓國藝術誌」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매년 간행되는 문예작품, 상영되는 희곡, 상영되는 영화 등에 대한 서지를 수록하고 있다. 國史編纂委員會에서는 계간으로 「韓國史研究叢報」를 간행하고 있다. 이 연속간행물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한국사·한국학 연구관계의 저서나 논문의 초록을 수록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또 독립운동 관계의 서지인 「韓國獨立運動史論著目錄」도 발행하였다.

(6) 國防部

國防大學院圖書館에서는 「國防軍事文獻目錄」을 간행한 일이 있고, 陸軍士官學校圖書館에서는 「시사문제색인 1962」를, 空軍中央圖書館에서는 「정기간행물 종합 Index 1962」를 각각 간행한 일이 있다.

(7) 農村振興廳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에 관한 서지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소급서지로는 「農事試驗研究結果要覽 1905~1960」을, 박사학위논문의 초록으로서 「農業分野 博士學位論文抄錄集」을 발행하였다. 최신정보를 위한 서지로는 1974년부터 「농촌진흥사업 문헌정보원보」를 계간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는 소급하여 누적한 「農學學術雜誌記事目錄」을 간행하고 있다.

(8) 建設部

國立建設研究所에서는 「建築技術文獻目錄」을 연간으로 간행하고 있으며, 國立地理院에서는

「韓國古地圖目錄」이라는 옛 지도의 종합목록을 간행하였으며, 제작하고 있는 지도의 축척별로 「地圖番號 및 一覽表」 또는 「製作現況」 등을 연 1회 이상 발행하고 있다.

(9) 勞動部

行政資料室에서 「노동관계자료목록」을 연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10) 文化公報部

문화공보부에서는 「國內定期刊行物一覽表」를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國學資料保存會에서는 계간으로 「國學資料」라는 서지지를 간행하였으며, 또 「韓國典籍綜合目錄」을 7집까지 간행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중단되었으나, 후자의 종합목록은 같은 서명은 아니지만 文化財管理局에서 계속하여 「春隱朴文秀圖書目錄」, 「瓶窩著書目錄」 등 단행본으로 간행하고 있다.

(11) 逡信部

行政資料室에서 「행정자료목록」을 연간으로 간행하고 있다.

(12) 서울特別市

市立圖書館의 종합목록인 「서울特別市立圖書館綜合目錄」을 매년 발행하고 있다. 이 책은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받아들인 책들을 수록한 장서목록이다. 그 중 鍾路圖書館에서는 「學術論文綜合索引」을 간행하였다. 敎育研究院에서는 「敎育圖書目錄」을 여러번 간행하였다.

(13) 釜山直轄市

釜山市立圖書館에서는 「雜誌索引目錄」과 「新聞클리핑目錄」을 간행한 일이 있으며, 또 「圖書解題」를 5집까지 간행한 일도 있다.

(14) 大邱直轄市

大邱市立圖書館에서 「新聞社說索引目錄」을 낸 일이 있다.

V. 國策機關의 書誌活動

국책기관인 여러 연구소나 기업체에서도 그 기관에 관계되는 전문성이 있는 여러 가지 서지를 편찬·간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한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나 자료의 목록도 발간하고 있으며, 또 속보도 간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알려진 서지활동만 소개한다.

(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자체에서 편찬한 서지로는 종합목록의 성격이 띤 「韓國古小說目錄」, 한 가지 책의 색인인 「三國遺事索引」, 「增補文獻備考索引」을 발행하였고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도 수정하였다. 개인이 편찬한 서지도 많이 발행하였는데, 鄭亨愚·尹炳泰가 편찬한 「韓國冊板目錄總覽」, 尹南漢이 편찬한 「韓國文集記事綜覽類別索引」의 잡저편(이 책은 부분판도 나왔다), 宋芳松이 편찬한 「韓國音樂論著解題」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韓國學研究人名錄」도 2회나 발행하였는 바, 이 책은 개인별 서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인명록에 수록되어 있는 저서나 논문의 要語索引이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의 작업으로 1981년에 科學技術處에서 「研究人名錄 KWIC索引集」이라는 서명으로 발행되었다.

(2) 韓國敎育開發院

격월간으로 「敎育學學術雜誌目次速報」를 발행하고 있다. 이 간행물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편찬하고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에서 간행하고 있던 「學術雜誌目次速報: 敎育學·心理學·社會學篇」을 이은 것이다. 또 「敎育學學位論文抄錄集」을 분야별로 수시로 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교육관계 주제서지를 많이 발행하였다.

(3) 韓國學術振興財團

월간으로 「外國學術雜誌目次速報」를 人文科學篇과 社會科學篇으로 나누어서 3책씩 출판하고 있다. 또 연간으로 「學術研究助成費支援課題論文抄錄集 人文社會科學篇」으로 간행하고 있는 바, 이는 종전까지 國立圖書館에서 편찬하고 文敎部에서 발행하였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종합색인」을 발전시켜 초록을 붙인 것이다. 제단에서는 분류순으로 된 「外國學術雜誌綜合目錄」을 “人文·社會科學篇”·“單科大·敎育大~人文·社會科學篇”·“自然·應用科學篇” 등의 3책으로 나누어 발간한 다음 그 「目錄索引」 1책 모두 4책을 간행하였다.

(4) 產業研究院(KIET)

이 연구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에서는 「韓國科學者業績目錄」을 영어로 발간한 외에도 「방위산업현

목록」등 여러 책을 내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서지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일은 산업연구원에 이어져 계속하고 있으니, 「과학기술문헌속보」를 7개 분야로 나누어 월간으로 발행한다든가 「학술잡지목차속보: 經營·經濟」를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 「外國特許」를 주간으로, 「特許情報」를 제간으로 발행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원에서는 「海外産業技術情報」라는 주간속보지도 발간·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자료은행의 데이터 베이스로 서지정보의 전산검색과 제공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5) 韓國機械研究所

부정기간으로 「海事技術文獻速報」를 발행하고 있다.

(6) 韓國動力資源研究所

「國內에너지文獻抄錄集」을 연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VI. 民間에서의 書誌活動

앞에서 든 도서관·대학·기관 이외의 기관·학회·단체·서점 등에서도 서지활동을 하고 있다. 편찬·발행하고 있는 서지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장서목록이나 기관 자체내의 이용만을 위한 서지는 제외하고 각 기관별 서지활동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교보문고

「綜合圖書目錄」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서점목록이지만 소급서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2) 大韓出版文化協會

「새로 나온 책들」을 주간으로, 월간으로 발행되는 「出版文化」의 권말에 그 달의 출판서목을, 「韓國出版年鑑」을 연간으로 발행하여, 해당 연도에 출판된 서목을 분류순으로 저록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민간출판물만의 全國書誌라 말할 수 있다. 이 협회에서는 1978년에 「科學技術圖書綜合目錄」을 낸 일이 있으나 지금은 중단하였다. 이 협회가 전산입력한 1910년 이후의 우리나라 도서총목록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으나, 곧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3) 百濟文化開發研究院

백제연구 내지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 관계

되는 저서·논문의 초록인 「百濟研究論著總覽」을 2집까지 발행하였다. 수록한 논저는 국내외를 다 포함하고 있다.

(4) FAO 韓國協會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한국협회인 이 기관에서는 「식량·농업관계 도서종합목록」 외에도 여러 가지 서지를 발행하였다.

(5) 亞細亞文化社

「典故大方索引」, 「大東韻府群玉索引」, 「官報索引」과 같은 색인을 발행하고 있다.

(6) 연구개발단지도서관협의회

「과학단지 장서종합목록」을 연간으로 전산출력에 의하여 발행하고 있다. 대덕·울산·창원 그리고 서울지역의 여러 연구소의 종합목록으로 분야별 목록이며 색인이 있다.

(7) 映畫振興公社

「韓國映畫資料便覽」이라는 영화의 소급서지를 낸 일이 있다.

(8) 全國私立大學校圖書館協會

「全國大學刊行 逐次刊行物目錄」을 2회,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을 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협력에 필요한 서지를 발행하고 있다.

(9) 종로서적주식회사

「綜合圖書目錄」을 격년으로 간행하고 있다. 서점목록이지만 발매중인 상업출판물·정기간행물·대학간행물을 수록하고 있어, 소급서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10) 韓國研究院

매 5년마다 「文獻選錄」이라는 한국연구관계 국내·외국도서와 잡지의 목록을 발행하고 있다. 이 연구원에서는 *Index to Korean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1945~1966* 라는 국내 발행의 영문잡지의 색인과, *Union List of Western Books on Modern Korea* 이라는 종합목록, 「韓國碩博士學位論文目錄 1945~1960」 외에도 여러 가지 서지를 발행하였다.

(11) 韓國經營教育委員會

「經營學文獻索引 1945~1984」를 발행하였다.

(12) 韓國規格協會

「KS 총람」이라는 한국공업규격의 목록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3) 한국기독교서점연합회

「기독교종합도서목록」이라는 해제서목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4) 韓國大學出版部協會

「全國大學出版部 綜合圖書目錄」이라는 해제서목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5) 韓國圖書館協會

「學術雜誌索引 1960~1962」를 2책, 「選定圖書目錄」을 5집까지 발행하였으나 문교부의 예산지원 단절로 말미암아 중단하고 말았다. 전자의 색인은 국회도서관에서 계속하게 되었으나, 후자의 목록은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기본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친 것은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40여년간이나 계속하여 지금도 정부의 후원으로 편찬·발행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라 하겠다. 협회에서는 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韓國書誌年表」, 「韓國參考圖書解題」와 같은 단행본의 해제서목도 발행하였으나, 역시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그 추가분을 편찬조차도 못하고 있다. 일본·미국 등의 외국에서 3판 내지 9판이 나왔고 그 추록이 격년으로 발행되는 것과는 좋은 대조가 된다 하겠다.

(16) 韓國醫學圖書館協議會

「醫學關係雜誌綜合目錄」을 여러번 개정하여 발행하였으며, 개정판의 사이 사이에 연간으로 추록을 발행하고 있다.

(17) 韓國雜誌協會

「韓國雜誌總覽」이라는 우리나라 잡지의 해설 목록을 2회 발행하였다.

(18) 韓國出版協同組合

조합 가입자를 중심으로 하여 「販賣圖書目錄」과 「綜合圖書目錄」을 연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 하나의 출판서지라 하겠다.

(19) 鄉文社

「韓國農學主要文獻目錄集 1903~1979」라는 농학관계 소급서지를 발행하였다.

(20) 가톨릭출판사

가톨릭 관계의 문헌이나 자료의 해제서인 「가톨릭 자료 모음」을 3회 발행하였다.

VII. 書誌事業의 當面課題

우리나라의 서지사업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찌기 「도서관」지에 약간 언급한 일이 있다. 여기에서는 각도를 달리하여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에 중점을 두어 다루어 볼까 생각한다.

1. 書誌統整機構의 구성

미국·영국·소련의 경우와 같이 서지사업을 조정하는 위원회와 같은 조직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서지활동을 하고 있는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산업연구원·한국서지학회와 같은 정부 및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서지(통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조직으로 하되 부·처 소관하가 아닌 보다 상급기관의 직속하에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굳이 부처하에 둔다면 文化公報部 아래에 두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에 있어서, 서지는 정보나 공보활동의 한 분야이지 도서의 고유업무만은 아닌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교육기관이라고만 보기보다도 정보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서지(통정)위원회에서 도서관이나 여러 기관의 중복된 서지활동을 조정하는 한편, 보다 확충된 서지활동을 행하려면 그 통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언급하는 여러 과제와 결부하여 볼 때, 국가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위원회 직속의 연구 또는 재교육기관으로 韓國書誌情報研究院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2. 國際書誌統整事業에의 참여

현재 IFLA(國際圖書館協會 및 機構聯盟)에서는 UBC(국제서지통정)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의 하나로 서지를 記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이 표준의 약칭은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라고 하는 바, 이의 제정에는 한국의 여러 기관을 비롯하여 자유전영이나 공산권의 여러 국가·기관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IFLA에서는 이 표준에 의하여 자국에서의 서지기술을 통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로마자가 아닌 한자 사용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UBC의 사업에는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야말로 전세계를 통한 서지정보의 소통에 많은 공헌을 하는 일이라 하겠다.

3. 書誌記述標準의 제정

우리나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ISBD에 입각하여 1983년에 「韓國目錄規則, 3版 記述·標目올림指示篇」을 제정하여 발행하였다. 그러나 예산상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헌자동화목록법」이라는 자동화서지를 위한 목록법을 여섯 권이나 발행하였다. 이 두 기관에서 제정한 표준들은 같은 부분도 많으나, 세부적인 점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국내의 여러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합의할 수 있는 표준제정의 완성이 요구된다. 새로이 완성된 서지기술표준은 미국·독일·소련·일본의 여러 표준과 마찬가지로, 카드 위뿐만 아니라 기계로 없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표준으로 되어야 하겠다.

4. 書誌作成의 自動化

종전에는 손으로 작성·편집·식자하여 인쇄하는 수작업을 하는 저개발적인 서지작성이 주가 되어 왔다. 그러나 컴퓨터의 활용으로 자동 입력에 의한 편집과 축적 그리고 출력은 종전의 수작업을 탈피하여 보다 능률을 향상하게 하였고 극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동화기계의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야 하겠다.

그렇다 하여 지금 자동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앞의 II~VI에서 약간씩 언급한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는 자동화가 실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 ① 국립중앙도서관에서의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 외국도서 종합목록, 연속간행물목록 등의 KOR MARC(한국기계가독편목)화,
- ②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 총목록, 대한민국 법령색인, 국회의원목록색인 등의 UNIMARC

(국제기계가독편목)화,

- ③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서양서 장서목록, 국립대학 외국 학술잡지 종합목록 등의 LC MARC(미국 의회도서관 기계가독편목)화,
- ④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학연구인명목의 자동화,
- 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인명목,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 논문초록집, 외국학술잡지 종합목록 등의 전산화,
- ⑥ 연구개발단지 도서관협의회 회의 과학단지 장서종합목록의 전산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각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산화서지는 많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각자가 개발한 어느 전산화서지이든간에,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전산화서지와는 서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互換性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전산화서지 표준의 효율적인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5. 溯及的 累加 國家書誌의 작성

국가적 차원의 국가서지는 앞에서 든 바와 같이 국립도서관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가 작성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이나 출판사에서 전문주제별의 소급적 서지도 작성되고 있다. 적은 인력과 제정의 어려운 조건에서나마 이만한 서지활동을 수행하였고 또 수행하고 있다는 데 비하여는 놀랄 뿐만 아니라 찬사를 보내고 싶다. 서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그 어려움의 가치는 말로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모처럼 만들어진 서지는 만든 사람의 희생과는 반비례하여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많은 편의를 제공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다 좋은 대우하에 보다 많은 인원을 충원하여 국가서지를 편찬·배포하는데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국가서지 편찬이 바로 국가경제의 절약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서지는 기술표준에 따라 완전한 現時的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연차적으로 또는 다년간 축적한 누가적인 소급서지가 중요하며 또 편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소급적 누가 국가서

지의 발행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꼭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으며, 민간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있다. 심지어는 민간출판사가 컴퓨터를 작동하여 자동편집하거나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 인쇄된 것은 책자의 형태나 마이크로 필름 또는 마이크로 피쉬의 형태로도 발행하고 있다. 마이크로화한 자료를 컴퓨터로 자동검색할 수 있는 COM 방식도 개발되어 있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서지에 수록할 자료의 범위에는 ① 책, ② 소책자, ③ 지도, ④ 악보, ⑤ 녹음자료, ⑥ 녹화자료, ⑦ 마이크로 자료, ⑧ 고서, ⑨ 문서·기록, ⑩ 磁氣資料, ⑪ 영인본 등 국내에서 발행한 모든 언어로 된 자료와 국내에 들어온 모든 외국의 자료가 망라된다면 더욱 좋겠다. 개개의 잡지·논문집·보고서 등의 기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색인화 또는 초록화하여야겠으며 그 소급적 누가관을 전문·주제분야별로 만들어야 하겠다.

지금 계속하여 발행되고 있는 국가서지가 모든 자료를 점차적으로 수록하여 누적하는 일과는 달리, 기왕에 생산되었던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원을 서지르나마 정리하여 누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 이루어진 소급적인 사실을 알아내는 서지들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자연과학에서는 꼭 필요하다. 1930년대에 이미 이루어진 연구를 지금 다시 연구하고 있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급적인 서지활동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 古書의 경우는 필자의 「韓國古書綜合目錄」으로 해결 정도는 되었다 하나 아직 그 보충은 필요하다. 1945년 이후에 나온 단행본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韓國書目」이나 「대한민국 출판물총목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나, 그 완전성에 대하여는 불충분하지 않을까? 나아가서 누적판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또 소장처도 밝혀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National Union Catalog*와 같은 누가적 국가서지의 출간은 꼭 필요하다.

특히나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간행한 도서의 목록은 작성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관하여 쓴 외국 사람에 의한 또는 외국에서 간행된 도서나 기사의 서지작성도 시급하지 않나 생각한다.

몇몇 분야에서 전문적인 主題書誌들을 발행한 바 있고 또 준비중에 있다. 그러면 이들의 서지기술이 과연 표준화되어 있는가, 또 이들의 기술결과를 전산화하였을 때 서로 호환성이 있는가도 문제이다.

6. 專門分野別 書誌센터의 設立

미국·소련·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전문분야별 서지센터를 설립하여 전문분야의 최신서지와 소급서지를 만들고 이용자에게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학은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농학은 국립농학도서관, 화학은 CAS, 생물학은 Biosis 등에, 소련의 경우 과학기술은 VINITI, 건설은 CINIS, 의학은 VINIMI, 농학은 VINTI, 특허는 CNIPI, 규격은 VINIKI 등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서지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문분야별 서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은 ① 시설, ② 전문사서, ③ 자료, ④ 서지망·조직, ⑤ 이용자라 하겠다. 이 중에서 자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서지기관인 국립도서관들이 방대한 양의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서지작업을 하고, 또 이들을 보존·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벅찬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관 또는 동격의 주제전문도서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주제서지도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전문주제분야 도서관·서지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데는 매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미 주제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자료·인력의 기반이 있는 도서관을 확충하여 그 기능을 맡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의학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의학분관, 농학은 농촌진흥청 도서관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서지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서지정보나 자료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서지정보를 소개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외국 자료 자체의 접근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하여 이 센터에서는 외국의 중요한 자료를 분담 수집하여 소장해야 하며, 그곳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은 소장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그들 사이에 전사장치(Facsimile)의 설치나 상호 복사 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없애고 다른 기관과 합병한 일 같은 것은, 이러한 전문주제 서지정보센터에 대한 시대적 경향에 역행하는 처사라 하겠다. 또 모체단에서 하고 있는 서지활동과 같이 국내에 이미 소장하고 있는 비싼 외국 자료를 들여와 새로운 서지활동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경제적 면에 있어서 외화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전문주제 서지활동을 시작하거나 올바르게 계속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와 같은 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겠다.

7. 書誌網·組織과 書誌配布

앞의 4와 같이 서지작성을 자동화하였다면 서지정보의 축적과 동시에 그 배포도 매우 신속하고 쉽게 하여야만 하겠다. 서지정보의 배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서지망(network)을 구성하는 일이다. 서지망 조직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가서지기관을 정점으로 하여 전문주제 서지센터를 막료조직으로 하고, 각 직할시와 도를 중간센터로 한 다음 다시 이들과 면·지역사회의 학교·연구소·공장 등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우산모양의 조직이 바람직하다.

서지망은 그 궁극적 목적이 자료나 정보를 보다 완전하게 수집·축적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포 전달하는 데 있으므로 우산 모양으로 하향식으로만 진행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서지봉사망의 말단 단위에서 수집되는 자료·정보의 상향식 전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영국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이나 소련의 VINITI와 같은 제도상의 개혁까지도 생각해 볼 만한 일

이다.

서지망의 구성에 있어 일어나는 문제로서 역시 큰 것은 그 운영비이다. 특히 자료비·인건비·통신비가 문제이다. 이 중에서 자료비와 인건비의 문제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는 도리어 후자적인 면이 크다. 반면에 통신비는 매우 많이 든다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신비를 일개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지정보의 송·수신이나 자료 자체의 전송·복사에 소요되는 전신비에 대한 특혜화가 요청된다. 국가발전이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와 같은 정보개기기관의 설립은 환영할 일이다. 이 기관이 전국의 서지정보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매개만 한다면, 국가서지기관이나 전문주제 서지센터에서 작성·축적한 각종 자료은행의 서지정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 정보의 유통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요는 서지의 작성·축적·배포의 기능은 서지센터의 기본 기능이며, 서지정보의 매개기능은 또 다른 기능이 되는 것이다.

VIII. 結 言

이상에서는 국내에서의 서지사업·활동을 ① 국립도서관들, ② 대학, ③ 정부기관, ④ 국책기관, 그리고 ⑤ 민간 등으로 크게 나눈 후,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서지사업의 당면과제로 일곱 가지를 들고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의 서지는 여러 도서관이나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하여 편찬·축적되고 있으며 또 배포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이용자인 대학인들에게 제 때에 올바르게 꼭 필요한 서지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은지도 의문의 하나이다. *